

제2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개최하며

한국의 불교문화는 1,700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 우리의 삶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천년이 넘는 유무형의 자산은 현시대에도 그 감화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계승하여 다시금 아름답고 향기롭게 꽃피우기 위하여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43년의 시간을 지나며 2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불교미술을 발전시키고자 서원을 세운 현시대의 불교미술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출품하여 장엄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풍요로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시절인연에 따라 사람들의 아름다운 심성을 불러일으키는 문화예술은 항상 꽃피어 왔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은 문화가 가장 흥성하던 통일신라시대에 이루어졌으나, 같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은 고려가 전란에 휩싸인 와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문화예술은 거래와 민족이 곤란에 처해 있을 때 민족의 숨겨져 있는 저력과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불교미술대전은 곤경에 처한 삶 속에 가리어 잊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진주 같은 심성과 자비로운 불성의 존재를 예술적 장엄물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교미술작품은 예술을 넘어 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을 담으려 하는 작가의 지극한 정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공덕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이 정진의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전시회를 원만히 이끌어 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10월 1일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